



대행수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수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체가 없는 마음 왜 마음대로 못 쓰세요

15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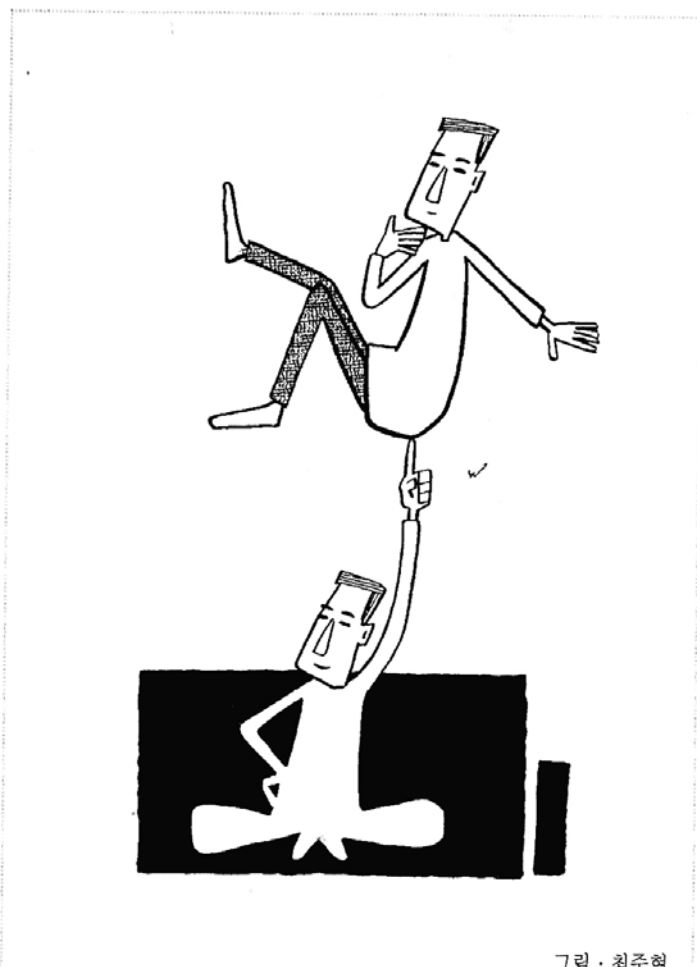
달니까. 불구덩이에다 탁 집어넣고 그냥 입 씹고 씹고 돌아서는 거와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억울한 점이 없을 겁니다. 모든 걸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손들도 착한 자손들로 화하고 남편도 착한 남편으로 화하고 부인도 착한 부인으로 화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조상이 잘못했다면 그것도 관해 줌으로써 조상과 산 사람이 함께 다 평화를 얻고 화합이 이루어져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좇아가서는 안되니 그것도 앞에 말한 것처럼 관하십시오. 갖다주는 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살아있거든요. 돈도 집안을 들여다 보고 이 집이 복잡하다 그러면 안들어가요. 가봤자 만날 싸우고 찢기고 할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이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다고 자꾸 들어오게끔 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해놓으시는 시치미를 툭 떼고 계세요.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마음대

으니가 이거 이렇게 꼭 잡아와 되지 이러구 붙들고 있다가요. 그러니 그걸 잡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고 또 앙심을 품고 있다가도 뜻대로 못하고 이러다 죽으면 그게 어디로 다 갑니까. 그 품은 마음이 어디로 가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전성이다 인과성이다 이런 걸로 연결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도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놓으란 말입니다. 산에 가보십시오. 짧은 것 긴 것, 큰 것, 작은 것, 천차만별로 조화를 이루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목나무도 있고 벌레먹은 것도 쪽쪽 뻗은 나무도 있고 휘어진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큰 산이지, 좋고 잘 뻗은 나무만 있다면 그게 무슨 큰 산입니까.

그래서 여복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주산신도 되고 주해신도 되고 맘대로 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내 몸이 어디 아프더라도 스스로서 약사를 만들어 낫게 할 수 있어야죠. 즉 말하자면 '이른 거 낫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관하게 되면 약사로 화해요. 또



그림·최주현

“우리인생은 끼리끼리 모이는 법
가정에서 만난 인연도 똑같아요
차원대로 주어진걸 누굴 탓하죠”

고정됨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
삼세가 공하고 우리가 공했다 하죠
그러니 좋은것 싫은것 다 놓으세요

로 마음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들 살아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들었다 하면 벌써 지나가고 왔다 해도 벌써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보면 보고만 있습니다. 들으면 듣고만 있습니다. 가면 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오고만 있습니다. 만나면 만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공해서 텔레포트가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이 하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찰나찰나 화해서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서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래로 다가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올라오실 때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한 발 딛고 한발 놓고 한발 딛고 한발 놓고 오셨죠? 그런데 그 한발 놓은 거는 어떻게 짚어지고 있었습니까. 놓고 오셨습니까? 자연으로 놓고 왔죠? 뭐 거북하게 신경을 써서 놓고 오셨습니까. 한발 성큼 딛고 한발 놓고 또 한발 딛으면 자동적으로 한발 놓고 왔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왔죠? 우리 살림살이가 다 그래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차를 두고 음식을 두고 불을 놓는다는 지 모르겠어요. 놓어지는 마음이 있고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놓고 간다고 해도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양심이 남아있는 한 끝이 안나타요. 그러니 관해서 완전히 놓어지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똑같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실천을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죠. 다시 한번 여기하겠습니다.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삼세가 공하고 우리가 다 공했다 이겁니다. 공했다는 뜻이 이해가 잘 안되시면 아가 얘기한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한 이치니까요. 고정됨이 없으니 찰나찰나 발을 떼어놔도 찰나찰나 없어지지. 또 보는 것도 찰나찰나만 것 봐야하고 듣는 것도 찰나찰나만 것 들어야 하고 만나는 것도 찰나찰나만 사람 만나야 하고 먹는 것도 이것 먹으면 저것 먹어야 하고 이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자동적으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체를 자기 마음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때 연분에는 이랬고 아무때 연분엔 이랬으니가 '요거 두고 보자' 이러구 붙들고 있는 거 같아요. 아무때 연분에는 이랬

음도에 따라 관세음보살로 화하고 지장으로 화하고 칠성으로 화하고 주산신으로 화하고 주해신으로 화하고 자꾸 변해서 응신이 돼준단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다 있는 줄 모르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온통 바깥으로 아만법적들을 하며 자기가 끌려다니니까 문제죠.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죽어서 소박에 더 되겠습니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끌려 다니는 소 말입니다. 일만 죽도록 하고 자기 자유대로 사람도 될 수 없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빌어먹어도 자유스럽게 산다는 얘기가 있죠. 자유가 좋아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매를 봐달라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을 볼들어 봤더니 그 이튿날 달아나가더라. 왜 그렇게 달아나가느냐고 하니깐 난 자유가 좋다고. 나가서 밥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자유가 좋으시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은 아프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돈이 많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릇대로 주어진 겁니다. 끼리끼리 주어진 거예요. 금방에는 금이 놓여지고 넘마전엔 넘마가 있고 광동전엔 광동이 있었이 끼리끼리 만나다 이겁니다. 과일가게에 가도 배는 배대로 놓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모두 그렇게 끼리끼리 놔주세요. 우리 인생도 끼리끼리 맺어지고 끼리끼리 주어진 겁니다. 가정에서 만난 인연도 똑같습니다. 지어놓은 대로 차원대로 끼리끼리 주어졌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합니까. 남편은 부인 탓을 하고 부인은 남편 탓을 하고 또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자식은 부모 탓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두 화합이 무너지고 제각각 놀게 되죠. 이거를 뭘로 다스리느냐. 마음밖에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전력이 가고 오는 줄 모르게 흘러서 불이 켜지듯이 그런 거거든요. 전력은 가고 오는 것이 눈으로는 못 보지만 그러나 불은 켜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부자가 되지 않아서 억울하십니까. 그럼 부자로 살려고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고거기가 없어서 남한테 꾸러다니고 또 잘 못해서 남한테 붙잡힐까봐 도망다니고 숨어지내고 이러니까 이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정말이지 생활 속에 부처님이 계신 거지 생활을 떠나서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지식이나 학식이 많아서 말을 잘 할 줄은 모르지만 한마디도 거짓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익을 못본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죠. 그건 죽는 것만도 못하죠. 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 가루로 만들어 뿌려져도 좋다고요.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가 돼있으면 물질로 너적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은 너적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여기올때 한발 딛고 놓은 그한발
짚어지고 왔나요 그냥 놓고 왔죠
우리네 살림살이도 같습니다

눈하나 깜짝 안하는 분이려면 요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는 겁니다. 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처럼 어려운 고통이 없어요. 거짓말을 한번 하다보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하니 이거는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털어버려 버려요. 속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죽으려면 죽고 싶다면 살려라 하고 마음을 크게 쓰세요. 이왕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죠.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죠. 모든 걸 돌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다가 꿈을 꿔도 보면 안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꿈에 어떤 여자가 미친 것처럼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하고 구렁이를 끌고서 자기집으로 왔더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느냐고 하니가 그냥 막 얼어지더라는 거죠. 꿈에도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대치해 나갈려면 지금 살아있으면서 돌로 보지 않는 대치를 할 수 있어야 죽어서도 대치를 할 수 있어요. 조상의 변고가 나는 것도 돌로 보기 때문에 변고가 나는 거죠.

본이고 또 인과성이나 업보성이나 유전성이 모두 얽혀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가. 즉 여러분 자체가 없다면, 또 공한 걸 안다면 아무리 공에 와서 한테 합쳐도 공이지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우치시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공까지도 마저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에다가 놓으면 뭐가 되느냐. 수만 개를 마음에 갖다놔도 그건 영이예요. 그걸 아세요? 조상의 마음을 다 끌어다가 나타나는 것대로 다 자기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불성이니까 그냥 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도 두지 않고 공간도 두지 않아요. 그냥 찰나에 화해버려요. 그러니까 만개를 갖다가 거기다 놓어도 만개라는 이름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리송하세요? 아리송한 것도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자꾸자꾸 해보면 알게 돼요. 내가 실천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천년의 부처님이 아무리 지금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누가 살아줍니까. 대신 먹어줍니까. 똥을 뉘줍니까. 잠자줍니까. 아파줍니까. 죽어줍니까. 깨우쳐줍니까. 그것은 도저히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 나와 현재 내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 되는 거죠. 과거의 나는 수억겁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진화되어 온 아주 금강과 같은 보배니까 그게 바로 자비요. 현재의 나는 모습일 뿐이죠. 모습으로 보지 않으면 상대성 원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내가 모습이 있어야만 상대가 나를 보고 내가 상대를 보고, 이래야만 보살행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공용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가요. 어떤 분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랬다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하면 공도 탁 치고 넘어갔다 하면 그대로가 여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여여하다. 그대로 여여한 걸 알아. 길면 길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판 사람이 길게 나오면 나도 길어주고 또 남이 짧게 나오면 나도 짧아주고 이래야 화합이 되죠.

그 래서 부처라는 것은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예요. 길면 길 대로 길어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짧아주고 요만한하면 요만한해서 같이 해주고 이만한하면 이만한해서 같이 해주고 바다같이 넓어지면 바다로 같이 해주고 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나가다 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애달피하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그 역경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기 때문에 보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거든 다 거기 보라 보라 하세요. 육조스님이 오로지 자기 마음가운데 자기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자기 불성

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기 불성으로 인해서 여여한 줄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기 불성이 있는 반면에 갖추어 가지고 있을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기 불성이 있는 반면에 만법을 듣고 내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면은 그렇게 한발 한 발 딛고 나갈 때 삶의 재미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는데서, 그 없는 가운데서도 뛰어 나가면 내일이 있고 참 재미있는 그런 자유 여건이 돌아와요. 즉 자유인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 친척이나 누가 면해서 지금 당장 급하다 이런 다면 바로 거기까지 한결같은 뛰는 거지. 두걸음도 아닙니다. 멀고 가깝고 이것을 떠나서 한발이예요. 한발! 과거 삼천년전이라도 한발입니다. 일초전도 한발이고. 그러니까 그 요량과 뜻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이지 성불이란 성불을 하게 되고 견성안견 성성을 하게 되고 또 과거 현재상 미래상을 한데 합쳐서 구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가요. 그래서 달이나 지렁이까지도 다 자기 몸을 바쳐요. 자기 몸을 산산조각을 내든지 자르든지 찢든지 함부로 해라 하고는 다 맡겨요. 맡겼을 때 때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든 화해서 다른 걸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요량과 생각을 못하면 그대로 또 지렁이가 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를 속에서 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면 자꾸자꾸 화할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나만 잘 살겠다 이러면 욕심이니까 그냥 배풀어요. 길에 오고가면서든 배풀고 그지 않았다가도 배풀고 갔다가도 배풀고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요. 일하는 것은 행선이고 앉았으면 좌선이고 섰으면 입선이고 누워 자면은 와선이예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선(禪)이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요만한 것 하나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은 앉았어만 참선인 줄 알아요. 그럼 앉았을 동안만 지구가 돌아가고 앉았지 않았으면 지구가 안돌아가나? 그런 줄로 알고 있나 봐요. 그

'둘러놓는다' 무슨 뜻인지요

문 스님 말씀중에 둘러놓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 거예요. 내가 내 앞에 딱히 할 일 없는데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하고 놓는 것이 둘러놓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플 때도 '아프게 한 것도 너니까 낫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둘러놓는 게 둘러놓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일어날때도 '이런 것을 없애주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 둘러놓는 거. 물론 번뇌망상이 일어난 공부를 못하지만 마음이 산란할 때는 '산란치 않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둘러놓으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음이 상쾌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애, 마음을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봐. 내가 형성시켜놓았으니 내가 좀 쾌활하게 살게 하지 왜그래' 그러면 쾌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둘러놓는 거예요. 둘러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사를 지혜롭게 이렇게 둘러놓으시라 이거죠. 다가오는 대로 달려오는 대로 그 용도에 따라서 달리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을 해줘야 되거든요. '엄마' 하면 엄마노릇을 해줘야 하고 때로는 '애'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량있게 해야죠. 또 '여보' 하면은 남편이 돼줘야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 이 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며 그 자체가 바로 보살의 마음이에요. 보살이 화해서 여러분한테 응신이 돼준다는 거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보살이 응신이 돼서 여러분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나만 잘난 게 아니니까요. 돌로 보지 않는다 하는 소리가 거기에 다 연관이 돼있어요. 보살의 통신처, 부처의 통신처, 이 세상 전체의 통신처는 여기밖에 (가슴을 가리키시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근본자리, 거기밖에 통신처가 없거든요. 빠져나갈 구멍도 거기고 통신처도 거기고 활발하게 살게 하는 것도 거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마음이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자라가다 성불하십시오.

*위 법문은 1999년 4월11일 서울 정동회관 정동회 백일법문때 '사문명의 지평,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